

제 목	식기 전에 업로드		
소속 대학	의과대학	소속 학과	의학과
학 번	2024****	이 름	안**

**# 맛은 평범한데 #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개강 이후 한 달. 오랜만에 본가에 내려가 고등학교 친구들을 만났다. 오전부터 예쁜 카페에 가서 밀린 근황 이야기를 한참 나눴고, 점심시간이 다가오자 다 함께 무엇을 먹을지 고민하며 휴대폰을 들었다. 나 역시 지도 어플, 맛집 어플에 들어가 근처 식당을 찾기 시작했고 습관적으로 식당의 리뷰를 확인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괜찮은 식당을 찾은 것 같아 휴대폰을 친구들에게 들이밀며 보여줬다.

“와, 사진 진짜 잘 나온다.”

“그니까. 여기 갈래?”

“클.”

다 같이 리뷰와 사진을 속속 넘겨보던 우리는 금세 만장일치로 식당을 정했다.

“어서 오세요~”

식당의 분위기는 좋았다. 적당한 조명에 아기자기한 인테리어, 잔잔하게 흐르는 음악까지. ‘느낌 좋은’ 장소라는 리뷰가 많았던 사실을 입증하듯 창가 쪽 테이블마다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보였다. 기대감에 부푼 나와 친구들 역시 자리에 앉아 빠르게 메뉴를 시켰다.

얼마 지나지 않아 우리가 시킨 메뉴가 속속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새우 오일 파스타와 프렌치 토스트, 단호박 뇨끼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분홍색 에이드는 투명한 잔 안에 담겨 햇빛을 받아 반짝였다. 맛있겠다며 입맛을 다신 우리는 거의 동시에 들었다.

포크가 아닌 휴대폰을.

“잠깐만, 아직 먹지 말아봐.”

“내 자리는 각도가 안 나오는데. 너 그거 다 찍으면 나도 보내줘.”

나는 사진이 잘 나오도록 접시를 창가 쪽으로 조금 밀었다. 다른 친구는 음료 잔을 살짝 돌려 잔의 로고가 보이게 맞추고, 이리저리 휴대폰을 돌려가며 최적의 조명을 찾았다. 플래시를 켜기도, 끄기도 했다.

그렇게 한참을 찍었다. 각도를 바꿔 가고, 음식의 배치를 바꿔 가며 사진을 찍는 동안 음식은 조금씩 식어갔다. 방금 막 요리해 나온 게 분명한 파스타의 따뜻한 김은 점차 사라져갔고, 토스트와 함께 나온 아이스크림도 녹고 있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우리는 아무도 그 사실을 지적하지 않았다. 유난히 사진을 오래 찍는 친구의 모습조차 아무렇지 않게 기다리고 있었다. 그 순간에는 나 역시 내가 찍은 음식 사진을 확인하며 ‘이건 SNS에 올릴 만한지’, ‘사진이 잘 나왔는지’를 판단하고 있는 것이었다.



우리는 뒤늦게 포크를 들었다.

내가 가장 먼저 맛본 음식은 프렌치토스트였다. 평소 프렌치토스트를 좋아해서 카페나 양식 집에 가면 두 번 중 한 번은 꼭 이 메뉴를 시키곤 하는 내가 고른 메뉴였다. 이미 아이스크림이 반 이상 녹아 축축하게 젖은 빵을 잘라 입에 넣자, 식은 타인지 미지근하고 상투적인 단맛이 퍼졌다. 그렇게 빵을 몇 번 만에 씹어 넘기고, 뒤이어 다른 메뉴도 서로 나눠 먹었다. 단호박 뇨끼는 위에 얹어진 소스가 굳어 여러 번 휘저어야 했고, 새우 오일 파스타는 식어 말라가는 오일의 기름진 맛이 두드러졌다.

“맛은 그냥 무난하다. 리뷰에서도 그러더라.”

음식이 괜찮다는 짧은 감상이 몇 번 오갔지만, 맛 자체에 대한 평가와 이야기는 오래 이어지지 않았다. 따뜻할 때 먹었으면 더 맛있었겠다는 생각도 잠시, 이곳에 오기 전 찾아봤던 어플 속 리뷰가 생각났다. ‘맛은 평범한데 사진이 진짜 잘 나와요.’ 그걸 떠올린 우리는 동시에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이 맞네. 가격이 싼 식당도 아니고, 실망할 법도 한 상황이었지만 누구 하나 크게 개의치 않았다.

음식이 반 이상 비워지자, 우리는 일전에 찍은 사진을 단체 메시지에 공유했다. 친구 한 명은 곧바로 SNS에 사진을 올렸고, 나 역시 가장 잘 나온 사진을 골라 편집했다. 사진의 밝기를 조금 높이고, 색감을 따뜻하게 바꾸니 우리가 먹은 음식은 훨씬 더 먹음직스러워 보였다. 윤기가 흐르는 파스타와 반짝이는 에이드의 색깔도 마찬가지였다. 고민 끝에 사진을 SNS에 올리자, 곧바로 내 소식을 확인한 다른 친한 친구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그 내용은 이랬다.

‘와 여기 진짜 맛있겠다ㅠㅠ’

회원님의 스토리에 입장을 보았습니다



와 여기 진짜 맛있겠다ㅠㅠ

메시지에 습관적으로 답장하려던 그 순간, 기묘한 괴리감이 밀려왔다. 그렇게 대화창을 한참 바라보던 나는 다시 사진 속 파스타를 들여다보았다. 화면 안의 음식은 방금 내가 먹었던 음식과는 달라 보였다. 말라가던 파스타의 오일 소스도, 녹아가는 아이스크림도 사진 속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다.

이상했다. 분명 내 혀가 기억하는 진짜 음식의 맛은 '기대 이하', '평범함'에 불과했는데, 내 손바닥 위의 작은 스크린 속 박제된 음식은 '완벽함 그 자체'였다. 이 사진을 다른 사람이 올렸더라면 나 또한 아무 의심 없이 '진짜 맛있겠다'고 답장을 했을 것이었다.

그 순간 문득 깨달았다. 나는 음식을 먹기 전부터 이미 맛을 소비하고 있었는데 모른다는 것을. 어쩌면 우리가 먹고 싶었던 건 음식 자체보다도, 그것이 가장 맛있어 보이는 순간이었을 지도 모른다는 것 또한.

생각해보면 이런 순간은 처음이 아니었다.

### # 두쫘쿠 오픈런 # 드디어 나도 먹어봄

몇 달 전, SNS를 통해 우리나라에서는 한 디저트 신메뉴가 유행처럼 퍼지고 있었다. 내 알 고리즘도 마찬가지로, 숏폼 동영상을 넘길 때마다 같은 음식이 반복해서 등장했다. 이러한 유행의 주인공은 바로 '두바이 쫘득 쿠키', 줄여서 '두쫘쿠'였다. 두쫘쿠는 지난해 유행한 '두바이식 초콜릿'을 마시멜로로 만든 쫘득쿠키와 결합해 만든 디저트로, 올라오는 영상마다 두쫘쿠를 반으로 갈라 보며 속에 들어 있는 피스타치오 카다이프를 보여주고 있었다.

손으로 코코아파우더가 잔뜩 묻은 두쫘쿠를 가르자 마시멜로 피가 길게 늘어나는 모습과, 그 안을 가득 채운 고소한 카다이프, 한입 베어 물 때마다 들리는 바삭바삭한 소리까지. 영상에는 댓글마다 "미쳤다", "오픈런할 만 하다", "꼭 먹어봐야 한다"는 말이 넘쳤고, 유행에 민감한 친구들 역시 하나둘씩 두쫘쿠를 먹어봤다며 인증 사진을 올렸다.



그림 2 유튜브 @mia식탁

그림 3 유튜브 @예일루YEillU

처음에는 이전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저 반짝 유행하는 디저트 중 하나라고 생각했다. 마시멜로에 코코아파우더까지, 이렇게 너무 달콤한 디저트는 원래부터 나의 취향이 아니었기에 그리 먹어보고 싶다는 마음도 들지 않았다. 그런데 비슷한 영상과 사진을 며칠, 아니 몇 주째 반복해서 보다 보니 이상하게 나 역시 그 쿠키가 궁금해지기 시작했다. 정확히는 이 디저트가 어떤 맛일지보다도, 다들 왜 저렇게 열광하고 ‘오픈런’까지 할 정도로 맛있다고 이야기하는지 직접 경험해보고 싶다는 마음에 가까웠다.

결국 겨울 방학의 어느 평일. 나도 친구와 함께 오픈 시간에 맞춰 유명한 디저트 가게 앞으로 향했다. 가게가 여는 시간이 오전 11시인데도, 9시 반부터 이미 줄이 길게 늘어서 가게에서는 번호표까지 배부하고 있었다. 그렇게 대열에 합류한 우리는 그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길 거리에 한 시간 이상을 서 있어야 했다. 주위를 둘러보자 사람들은 기다리는 동안에도 휴대폰으로 후기 영상을 찾아보거나, SNS에 올릴 사진에 대해 이야기했다.

“이건 반 갈라서 찍어야 한대.”

“맞아. 그 마시멜로 쪽 늘어나는 거랑.”

그렇게 시간이 흘러 내 차례가 되었고, 기다림의 끝에 손바닥만 한 쿠키를 받아 들자 묘한 성취감과 뿌듯함이 밀려왔다. 솔직하게 말하자면, 그 당시에는 추움과 배고픔보다도 ‘나도 이걸 드디어 먹어보네’라는 감정이 더 컸던 것 같다.

우리는 근처 카페에 자리를 잡고 두썬쿠 상자를 열었다. 기침만 해도 날아가 버릴 것 같은 코코아파우더의 향이 나를 반겼다. 친구는 곧장 쿠키를 반으로 잘랐고, 마시멜로 피가 늘어가며 고소한 피스타치오 카다이프가 보이자 우리는 거의 동시에 휴대폰을 들었다. SNS에서 수도 없이 보던 바로 그 장면이었기 때문이다. 우리는 그렇게 수십 장의 사진을 찍은 후, SNS에 ‘오픈런 성공’, ‘드디어 나도 먹어봄’이라는 텍스트와 함께 사진을 업로드했다.



그제야 두쫄쿠를 한입 베어 물었다. SNS에서 수도 없이 봤던 만큼, 달콤하고 쫄쫄한 마시멜로 피와 바삭바삭한 카다이프의 식감이 입안에서 조화롭게 어우러졌다. 친구는 입에 넣자마자 반사적으로 맛있다고 연신 외쳤다.

그러나 나는, 솔직히 말하면 첫입의 감상이 기대했던 것과 조금 달랐다.

물론 귀에 딱지가 없을 만큼 들었던 대로 달콤하고 바삭하기는 했지만, SNS에서 보던 반응만큼 충격적으로 맛있고, 두 시간의 기다림이 아깝지 않을 만큼 신선한 느낌이라는 생각은 들지 않았다. 오히려 내게는 조금 과하게 달고 느끼하다고 느껴졌다. 그런데 가장 먼저 든 생각은 ‘별로다’가 아니었다. 오히려, 나는 친구에게 이렇게 물었다.

“야, 내 입맛이 이상한 건가?”

주변 사람들은 하나같이 인생 디저트라고 말했고, 인터넷에는 연일 극찬 후기만 올라왔으며 두쫄쿠의 인기에 힘입어 이제는 ‘두바이 와플’, ‘두바이 소금빵’과 같이 두쫄쿠를 변형한 새로운 디저트가 쏟아지고 있었다. 나만 이 맛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 같다는 기분이 들었다. 그렇게 ‘두쫄쿠’ 시도는 만족스럽지 않게 끝났고, 나는 꽤 실망한 채 집에 돌아갔다.

그러나 그 뒤에도 알고리즘은 계속해서 내게 두쫄쿠 영상을 보여주었다.

결국 나는 며칠 후, 다른 가게의 두쫄쿠도 다시 사 먹어봐야 했다.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나는 왜 이 맛을 못 느끼는지 말이다.

그러나 결론은 동일했고, 그렇게 나는 여러 번 ‘두쫄쿠 오픈런’을 하고 나서야 인정할 수 있었다. 이 디저트는 단순히 내 취향이 아니었다는 것을.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렇게 몇 번을 아침 일찍부터 줄을 서 값비싼 디저트를 사 먹었는데도 허무한 기분은 들지 않았다. 이미 ‘두쫄쿠’는 내게 맛 이전에 하나의 경험과도 같이 소비되고 있었기 때문이다. 오랜 시간 친구와 줄을 서고, 줄지 않는 사람에 불평하고, 인증 사진을 찍고, 유행 속에 직접 참여했다는 감각까지 전부 포함해서 말이다.

어쩌면 내가 먹고 싶었던 건 두쫘쿠 자체가 아니라, 모두가 열광하는 유행의 순간에 들어가 보는 일이었을지도 모른다.

### # 포토 리뷰 남겨주시면 # 음료 서비스 드려요

생각해보면, 어느 순간부터 우리에게 음식은 단순히 먹는 행위 그 자체에서 끝나지 않게 되었다. 음식을 사진으로 남기고, SNS에 올리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확인하는 과정까지 포함한 하나의 '경험'이 된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험은 배달 음식을 시켜 먹을 때도 예외가 아니었다.

얼마 전,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던 어느 날 밤. 과제를 마치고 휴대폰을 확인하니 어느새 밤 9시가 넘은 시간이었다. 출출한 기분이 들어 냉장고 문을 열었다 달기만을 반복하다가, 결국 익숙한 듯 배달 어플에 들어갔다. 그러자 '야식 고민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먹음직스러운 음식의 이미지가 눈앞에 펼쳐졌다. 메뉴는 일찌감치 치킨으로 정했고, 어느 식당의 치킨을 먹을지 고민하며 기계적으로 화면을 짹짹 내렸다. 그러던 중, 한 치킨집의 문구가 눈에 들어왔다.

★포토 리뷰 작성 시 치즈볼과 음료 서비스 제공★

나는 별다른 고민 없이 주문 버튼을 눌렀다.

한 시간쯤 지나 도착한 치킨 봉투 안에는 치즈볼이 든 종이 상자와 캔 음료가 함께 들어있었다. 캔 음료에는 '리뷰 이벤트♥'라고 쓰인 조그마한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순간, 괜스레 '이득 봤다'는 생각이 들었다. 야식은 항상 시키고 난 후에야 죄책감이 밀려오기 때문에 이날도 치킨을 주문해 놓고 후회 중이었는데, 리뷰 이벤트로 받은 따끈따끈한 치즈볼을 보자 기분이 좋아졌다.

치킨을 자취방 책상 위에 펼쳐 놓고 습관처럼 휴대폰 카메라를 켰다. 리뷰 이벤트 참여를 위해서는 사진을 첨부해야 했기 때문이다. 치킨 상자의 뚜껑을 다시 정리하고, 음식이 잘 보이는 각도를 찾았다. 대충 몇 장을 찍은 후 곧바로 배달 어플에 들어갔다. 어플 화면에는 이미 '맛있게 드셨나요? 리뷰를 남겨주세요!'라는 알림이 뜨며 나를 재촉하고 있었다. 나는 코를 찌르는 치킨의 냄새를 맡으며 기계적으로 별 다섯 개를 누르고, '맛있어요'라는 글자를 재빨리 입력했다.

그제야 내 식사가 시작되었다.

조금 식었지만 치킨은 역시나 맛있었다. 바삭한 튀김옷 아래 짹짹한 육즙이 배어 나오고, 서비스로 나온 치즈볼 역시 아직 따끈따끈하고 촉촉했다. 배가 고팠던 만큼 맛있게 먹던 중, 메시지가 와 휴대폰을 확인했다. 답장을 끝내고 메신저 어플을 달자 원래 켜뒀던 배달 어플의 화면이 떴는데, 내가 쓴 리뷰가 보였다. 나는 무의식적으로 지금껏 남긴 리뷰들을 확인해보았다.

별점 5개와 '맛있어요'라는 상투적인 멘트가 줄을 이었다.

← 내가 남긴 리뷰

5.0



2024. 11. 15. 14:00

← 내가 남긴 리뷰

5.0



2024. 11. 15. 14:00

← 내가 남긴 리뷰

5.0



2024. 11. 15. 14:00

‘이 리뷰가 2명에게 도움이 되었습니다’

‘리뷰 이벤트 참여 완료’

‘사장님이 댓글을 남겼습니다’

짧은 문장들이 화면 아래로 끝없이 이어졌다. 나는 이어서 방금 주문한 치킨집의 리뷰 칸에도 다시 들어가 보았다. 설명을 거의 쓰지 않고 사진만 올려둔 리뷰가 대부분이었고, 뭔가 적혀 있는 리뷰도 대부분이 ‘맛있어요’, ‘양 많아요’처럼 하나같이 비슷했다. 아마 대부분 음식을 먹으며 깊게 고민하고 생각했다기보다, 나처럼 습관적으로 남긴 문장들이었을 것이다.

한참 화면을 내려다보던 나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방금까지 나는 치킨을 맛보기도 전에 사진을 찍고, ‘맛있다’는 리뷰를 남기고, 별점을 매기고 있었던 것이다.

생각해보면 음식은 늘 그랬던 것 같다. 먹기 전부터 이미 사진과 영상으로 소비되었으며, 먹고 난 뒤에는 숫자로 표시된 별점과 리뷰 개수로 기록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과정은 우리에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익숙해서, 어느 순간부터는 아무도 의문을 갖고 있지 않았다.

치킨을 한 개 더 꺼내 들며 휴대폰 화면을 꺾다. 머릿속에는 방금 남긴 별 다섯 개짜리 리뷰가 남아있었다.

### # 음식은 왜 # 식기 전에 찍게 될까

나는 여전히 음식을 찍는다.

식당에 가면 자연스럽게 휴대폰을 먼저 꺼내고, 새로운 음식이 유행하면 한 번쯤 찾아보고 사 먹는다. 늦은 밤 배달 음식을 시킬 때도 리뷰 이벤트를 지나치지 못한다. 스마트폰 프레임 속으로 음식을 끌어당기는 이 일련의 모습들은, 어쩌면 이제 우리 세대에게 너무도 익숙한 음식 소비 방식이 된 것 같다.

하지만 문득 돌이켜보면, 내 머릿속에 진하게 남아있는 음식들은 단순히 ‘맛있었던’ 음식만은 아니었다. 친구들과 사진을 찍는 데 열중하던 순간, 그렇게 열심히 찍은 음식이 너무 맛있어 다 함께 깔깔댔던 경험, 추운 겨울날 아침부터 가게 앞에 서서 발을 동동 구르며 설레던 날들, 늦은 밤 자취방에서 홀로 야무지게 치킨을 뜯어 먹던 장면까지. 그 모든 식탁에서 어느새 음식은 맛 그 자체를 넘어, 누군가와 경험을 나누고 나의 일상을 기록하는 다정한 매개가 되어 있었다.

물론, 때때로 우리는 음식 고유의 맛과 온도보다도 화면 속 사진의 색감을 신경 쓰고, 이 음식은 ‘올릴 만한지’ 평가하고, 맛을 온전히 느끼기도 전에 별점을 매긴다. 그렇게 음식은 액정 너머 화려한 색감의 이미지와, 차가운 숫자상의 데이터로 끊임없이 변환되고 소비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맛있는 음식을 먹기 위해 기꺼이 긴 줄의 대열에 합류하고, 정성스레 찍은 사진을 공유하며 서로의 일상에 다정하게 응한다. 어쩌면 지금 우리가 마주한 음식 문화는 단순히 먹는 행위에만 머무르는 게 아니라 기록과 공감, 연대라는 새로운 경험의 의미가 더해진 새로운 모습일 것이다.

다만 이제는 가끔, 사진을 다 찍은 뒤 음식이 식어버린 모습을 볼 때 이런 생각이 든다. 화면 속에 영원히 남겨지는 이미지뿐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내 앞에 놓인 음식의 온도와 맛 역시 놓치지 않아야겠다고.

그래선지 요즘은 가끔 먹던 중에 ‘아차’ 싶어 휴대폰을 드는 때도 있다. 언젠가, 접시는 이미 조금 흐트러져 있고, 양념은 이미 버무려져 있으며, 음식은 반쯤 비워진 뒤다. 예전 같았으면 올리지 않았을 사진이지만 어느 날은 오랫동안 고민하다가 미완성된 사진을 그대로 SNS에 공유한 적이 있었다. 그러자 친구들은 오히려 ‘엄청 맛있었나 보네’, ‘사진 재밌다’와 같은 반응을 보냈다.



그 순간 조금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 완벽하고 맛있게 찍힌 사진보다도, 정신없이 먹다가 뒤늦게 남긴 흔적에서 음식의 진짜 온기와 분위기가 더 또렷하게 전해진 것 같았다.

사실, 오래도록 우리의 기억에 남는 음식은 꼭 완벽한 사진 속의 맛있는 음식만은 아니다. 조금 식어버린 파스타, 기대보다 평범해 실망한 두쫌쿠, 시험 기간 밤늦게 먹던 치킨처럼 그날의 감정과 분위기가 함께 남아있을 때, 우리는 음식을 비로소 하나의 장면과 추억으로 간직하게 되는 것 같다.

결국,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음식을 찍는 건지도 모른다.

완벽한 한 장의 사진을 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언젠가 다시 꺼내 보았을 때 그날의 맛과 분위기, 그리고 함께했던 소중한 순간까지 떠올리기 위해서 말이다.